고수익보다 꾸준한 배당… 올 투자 트렌드 중위험·중수익

7개 기관이 글로벌 고배당 추천
적금보다 높은 5~7% 수익 목표
안전자산 선호… 금·채권 인기

〈2019년 7월 8일 기준 금융사 추천 펀드〉

펀드명	유형명	설정일	운용사명	추천 판매사 수
피델리티글로벌배당인컴[자](주식-재간접)C-A-e	글로벌주식	2013-02-20	피델리티자산운용	7
AB미국그로스(주식-재간접)C-형C-e	미국주식	2010-03-29	얼라이언스번스틴자산운용	7
AB글로벌고수익(채권-재간접)C-형Ae	글로벌하이일드채권	2009-06-30	얼라이언스번스틴자산운용	4
AB미국그로스(주식-재간접)C-형A	미국주식	2010-03-29	얼라이언스번스틴자산운용	4
피델리티글로벌배당인컴[자](주식-재간접)C-C-e	글로벌주식	2013-02-20	피델리티자산운용	4

〈2018년 7월 6일 기준 금융사 추천 펀드〉

펀드명	유형명	설정일	운용사명	추천 판매사 수
피델리티글로벌테크놀로지[자](주식-재간접)C-C-e	정보기술섹터	2015-06-17	피델리티자산운용	5
에셋플러스글로벌리치투게더[자]1(주식)C-Ae	글로벌주식	2008-07-07	에셋플러스자산운용	4
동양하이플러스채권[자]1(채권)A-e	일반채단기	2005-04-27	동양자산운용	4
삼성아세안[자]2(주식)(Ce)	동남아주식	2007-04-02	삼성자산운용	4
AB미국그로스(주식-재간접)C-형Ae	미국주식	2010-03-29	얼라이언스번스틴자산운용	4

/자료=펀드스퀘어

한국 증시에서 수익 기회를 찾기 쉽지 않자 금융투자업계는 꾸준히 수익을 내는 '인컴(income) 상품'에 주력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 펀드 등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글로벌 상품을 추천하던 작년과 다른 모습이다.

8일 한국펀드평가 펀드스퀘어에 따르면 현재 가장 많은 금융기관이 추천하는 상품은 '피델리티글로벌배당인컴' 펀드로 나타났다. 미래에셋대우, 키움증권 등 7개 금융기관이 글로벌 고배당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을 추천했다. 글로벌 하이일드채권에 투자하는 'AB글로벌고수익증권' 펀드도 5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다.

◆'인컴 상품' 개발 박차

금융투자업계는 인컴형 상품 개발에 나섰다. 당분간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한국 주식에서는 수익의 기회를 찾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적금보다는 살짝 높은 연 5~7% 수익을 추구하는 게 목표다.

대신증권은 지난 3월 '대신 골드 커버드콜 타켓 5% 인컴 상장지수채권(ETN)'을 내놨다. 금 선물을 매수하고 콜옵션(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을 매도해 안정적인 프리미엄을 확보하면서 금 등락에 따른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다. 금이 완만하게 상승할 경우 프리미엄만큼 추가 수익이 발생하고 하락 시엔 프리미엄만큼 손실을 만회해 위험을 낮추면서 5%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

삼성자산운용은 지난달 국내 최초의 자산배분형 재간접 상장지수펀드(ETF)인 'KODEX 멀티에셋하이인컴(H) ETF'를 출시했다. 채권·고배당주 등 정기적인 수익이 지급되는 자산에 분산투자하는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타깃 인컴 펀드(TIF)를 내놓으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은퇴시점을 타깃으로 하는 TDF(타깃 데이티드 펀드)와 달리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둔 인컴 전략 상품이다. 지난 2일 TIF 설정액이 1000억원을 돌파했는데 회사 측은 "인컴 중심의 전략배분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이 흥행 비결로 꼽았다.

◆올해 투자 트렌드 '중위험·중수익'

올해 투자 트렌드는 '안전자산 선호'다. 위험자산인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금, 채권 등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은 거래건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 기준 일 평균 거래량은 24.3kg으로 전년도 대비 23.9% 증가했고,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11억8000만원으로 34.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펀드 시장에서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다. 국내주식형 펀드에서 연초이후 1조5590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동안 인컴형 펀드로는 9102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특히 채권형 펀드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규모 자금이 들어왔다. 국내 채권형 펀드는 연초 이후 8조7258억원의 자금이 유입됐고, 해외 채권형 설정액은 1조9886억원 늘었다.

신긍호 KB증권 IPS 본부장은 "최근 높아진 변동성으로 주식형 등 위험한 투자보다는 다양한 투자자산으로 연 5~10%대의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을 고객에게 추천하고 있다"며 "비교적 안정적인 위험과 수익률을 보장하는 브라질 채권, 글로벌 인컴 상품 등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어태치먼트 '인도 1위'… 상장으로 제2의 도약

〈굴착기 탈부착장비〉

IPO간담회 - 대모엔지니어링

매출 75% 수출… 타타-히타치 수혜
시흥에 신규 '스마트 팩토리' 설립

대모엔지니어링 이원해 대표이사가 기업설명을 앞두고 기념 촬영에 임하고 있다. /대모엔지니어링

굴착기 탈부착장비(Attachment)와 특수목적 건설기계를 설계,공급하는 대모엔지니어링이 이달 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대모엔지니어링은 8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말 코스닥 상장 계획을 밝혔다. 이번 상장을 통해 최대 112억원을 조달할 예정할 대모엔지니어링의 공모주 수는 총 215만주다. 주당 공모가 희망 범위는 4800~5200원이다.

오는 9일부터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15일부터 이틀간 청약을 접수한다. 대표 주관사는 신한금융투자다.

대모엔지니어링은 건설기계, 특히 굴착기 어태치먼트 장비를 주요 사업으로 운영하는 회사다. 핵심 사업인 어태치먼트는 간단한 탈부착 작업으로 기본 굴착기 기능 외에 ▲대형 빔 절단 ▲타공 ▲도로 파쇄 ▲건물 해체 등을 가능하게 해준다. 평균 굴착기 가격의 약 10%를 추가로 지불하면 기본 기능 외의 활용도가 크게 늘어나는 점에서 건설 현장에서는 필수 장비로 인식되고 있다. 지하철 공사나 광산 개발 등에 흔히 사용되는 유압식 브레이커나 스크랩 처리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절단기인 쉐어(Shear), 크러셔(Crusher)등이 이 분야에 해당된다.

회사 매출의 75%는 수출에서 발생하고 있다. 초기 과정에서는 내수 시장을 주목했지만 일찌감치 인도 시장에 자리를 잡았다. 우선 초기 약 10년 간의 성장에는 현대건설기계를 주요 매출처로 둔 것이 큰 도움이 됐다. 지금도 수출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매출은 현대건설기계에 대한 ODM에서 파생된다.

인도 시장은 창업주인 이원해 대표가 1997년부터 인도 최대 그룹인 타타의 자회사 타타-히타치(TATA-HITACHI)와 손잡으면서 신흥국 시장 진출을 준비해왔다. 최근 인도 인프라 시장이 중국과 대등할 정도로 급성장한 데다 선진국에서 실질 판매 매출로 인정받은 기술력, 탄탄한 A/S에 타타-히타치라는 최대 매출처의 수혜를 입으면서 회사도 급성장했다.

경기도 시흥에 신규 공장도 들어선다. 굴착기가 다양하게 생산되면서 옵션인 어태치먼트 장비 생산 또한 다변화해야 하는데 회사측은 인도 시장 공급에 소요되는 부품에 대해 현지 생산 설비 투자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품질 관리와 원가 절감의 기본 목표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연면적 5000평이 넘는 규모로 지어질 신규 공장은 전 과정에 '스마트 팩토리' 공정이 도입된다. 목표대로 올해 10월 말 신규 공장이 완공되면 앞으로 회사 측의 생산 공정에는 ICT 결합을 바탕으로 실시간 공정 관리와 불량 알림, 정보 제어를 통한 데이터 구축과 원격 제어 등이 적용된다.

이원해 대모엔지니어링 대표이사는 "이번 코스닥 상장은 이익 환원과 기존 임직원의 보상이라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동기 부여 측면이 강하다"며 "상장을 단순 자금 조달이 아닌 제2의 도약 발판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코스닥 상장을 통해 단순 어태치먼트 제조, 설비 업체가 아니라 '스마트 솔루션'으로 대표되는 시장 표준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금융 다이제스트

하이투자증권

300억 규모 ELS 1종 공모

하이투자증권은 오는 12일까지 주가연계증권(ELS) 1종을 총 30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HI ELS 1844호는 항셍지수(HSI),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 니케이(NIKKEI)225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90%(12개월), 85%(18개월), 85%(24개월), 80%(30개월), 65%(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3.5%(연 4.5%)의 수익을 지급한다. /손엄지 기자

대신증권

'원화라! 미국주식 이벤트'

대신증권은 다음달 2일까지 해외주식을 거래한 고객을 대상으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펩시, 디즈니, 스타벅스 주식을 100원 대의 가격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원화라! 미국주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이벤트는 이벤트 기간 동안 해외주식을 한 번이라도 거래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애플(35명) 1주를 199원, 마이크로소프트(35명) 1주를 136원, 펩시(40명) 1주를 134원, 디즈니(35명) 1주를 142원, 스타벅스(50명) 1주를 84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손엄지 기자

상반기 액면변경 상장사 26곳… 3.7%↓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상반기 액면을 변경한 상장사가 총 26곳으로 작년 동기(27곳)보다 3.7% 감소했다고 8일 밝혔다. 코스피 상장사는 11곳이고 코스닥 상장사는 15곳이다.

유형별로 보면 액면분할이 22곳(84.6%)이고 액면병합은 4곳(15.4%)이다. 액면분할의 경우 1주당 액면 금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한 회사와 500원에서 100원으로 분할한 회사가 각각 8곳(36.4%)이었다. 또 5000원을 1000원으로 분할한 회사가 4곳, 500원을 200원으로 분할한 회사가 2곳 있었다. 액면병합은 코스닥 기업만 했는데 500원에서 1000원, 100원에서 1000원, 100원에서 500원, 100원에서 200원으로 병합한 회사가 1곳씩 있었다. 지난달 말 기준 증권시장에는 1주당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등 6종류의 액면과 무액면 주식이 유통되고 있었다. /김유진 기자

금투협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 개설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투자자문인력' 집합교육과정을 다음달 19일부터 개설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생 모집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은 부동산시장, 부동산투자 관련 법규·세제에 대한 기본 지식과 부동산 가치평가 및 부동산 투자자문 관련 실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이다.

교육기간은 8월 19일부터 9월 9일까지, 총 10일간 39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으로 진행된다. 교육대상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펀드, 증권, 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로서 부동산투자자문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이다.

수강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엄지 기자